#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소개

스티브 아규(Steven Argue) 박사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를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과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독교 생활의 깊은 공동체적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좋습니다! 신나네요! 최대한 인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브 아규(Dr. Steve Argue) 교수입니다. 풀러 청소년 연구소에서 청소년, 가족, 문화학을 가르치고 있고, 응용 연구 전략가입니다. 저는 성경을 생각할 때 복음의 이야기가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복음이 선포하는 희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와 그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같은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대화에 끼어 들어서 따라잡으려고 하겠죠? 억양을 파악하고 대화를 듣습니다. 웃긴 대화인가? 심각한 대화인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천천히 뒤로 물러나야 하나? 가끔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전체 이야기를 모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두 서신입니다.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큰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 장과 17 장은 우리에게 약간의 배경을 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었고 그곳에서 구타를 당하고 수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약 2 백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갈 때 보통 하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복음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 형제 자매들은 복음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메시지를 공유한 것 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공유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묶여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은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22 번 사용합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가족"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신의 영적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라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깊이있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하고 있는 이 대화에 어떻게 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서신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대화에 쏟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 가족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의 삶을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가? 아마도 우리는 기독교가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서로 삶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어쩌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죽음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악을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희망, 사랑이 이기는 이야기입니다.